

“신장질환 환자들에게 삶의 용기를 ……”

신장이식 환자의 모임 - 한 이 회



▲ 한이회 회원가족

보통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 특정인에게는 한없이 부러운 일일 수 있다.

소변이 마려우면 당연히 화장실에 가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가장 일상적인 일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보통 신부전증의 증상을 자각하는 시기는 만성적으로 신장이 병들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공으로 혈액을 투석하든지, 천의 하나 행운으로 자신에게 맞는 신장을 이식받아 건강을 회복하든지

치료방법은 정해져 있다.

요즘 모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일일연속극에서도 이 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가 등장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또한 신장이식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짚어주고 있기도 하다.

한이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장이식 환자의 모임이다.

처음 한이회가 발족하게 된 것은 1989년. 6년여의 투병생활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섰던 이건중(참빛 디자인 대표)씨가 주치의인 강중명 박사의 건의를 받아들이며서부터이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습니까. 만성신부전증이란게 하루이를 치료로 낫는 병도 아니고 신장이식을 한다 해도 시시각각 발생하는 여러 위급한 상황에서 매번 의사 선생님께 일일이 물어 볼 수도 없고…….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경험담도 들려주고 서로 아픈 마음도 위로해 볼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장 이건중씨의 이야기다.

이건중씨 자신 또한 '82년 발병하여 '88년 12시간의 대수술 끝에 누나의 신장을 기증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다.

이 모임의 씨앗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그는 투병이 시작된 그때부터 일주일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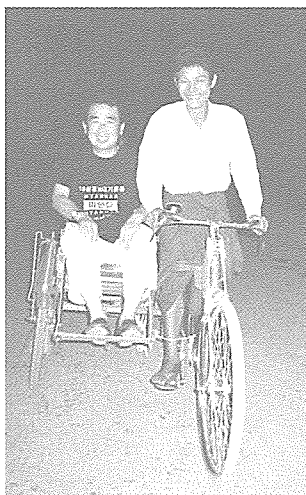
번 꼬박 여섯시간을 누워 투석을 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인공투석실에 TV를 설치하고, 반찬보관을 위한 냉장고 설치를 제안하고,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등 내 몸이 힘들고 귀찮아서 외면할 만한 일들을 몸소 앞장서서 병원 당국과 의논하며 해결해 왔다.

한이회 모임 결성 후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담당의사를 초대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눈, 위, 관절 등 이식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비해 평소 관리 방법을 소개해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생활에서의 주의사항을 교육하기도 했다.

또 자선음악회를 개최해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한다.

이제는 고참선배들이 신참환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을 만큼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이회 식구들은 봄, 여



▲ 선교지 미얀마에서 왼쪽이 이건종씨

름, 가을 1년에 3번의 야유회를 갖는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며, 항상 음식에 주의를 요하지만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러 가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서로를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한다.

처음 결성될 때부터 모임을 이끌어 온 이 회장은 발병 후 신앙생활을 시작해 자신이 입은 은혜를 갚고자 주치의인 강중명 박사와 함께 해외로 의료봉사 선교활동을 다니는 등 어느 건강한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의 상담전화를 받는다. 일상적인 안부에서부터 설사가 있는데 무슨 약을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이회장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약을 메모해 둔 수첩을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

“보통 처음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특징을 보면 주변사람들 탓을 많이 해요. 온갖 불평불만, 자신이 처한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죠.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라. 이식에 목적을 두지 말고, 복막투석, 혈액투석을 해도 자신이 현재 숨쉬고 있는 오늘에 감사하라고, 내일이 없어도 오늘에 충실하고



▲ 한이회 회원들의 야유회

감사하면 내일이 내게 주어진다고…….”

이 모임을 이끌어 가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역시 이식수술로 건강을 회복하는 회원을 볼 때이다.

이 회장은 이런 환자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살아난 것이니 두 몫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비록 거부반응이 와 신장을 다시 떼어 낸다 해도 당신이 수술대 위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어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수기에 이런 글이 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구원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죽음, 다른 하나는 장기 이식’

오늘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한이회 식구들은 자신들이 그랬듯이 이들에게도 거듭나는 새 생명을, 보통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그들 또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항상 기원한다. 그것은 또한 바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한다. (한이회 연락처 : 02-547 - 8457) ㉞